



사설

재단 혁신해야 한다

재단이사들이 학자부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지난10일 타워호텔에서 열렸던 제112회 이사회에서 11월22일로 임기만료된 8인이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총동창회 부회장이 유추형동문이사로 선출됐다.

이사회결과가 학내에 알려지자 총학생회를 비롯해 교직원들은 재단에 걸었던 기대에 실망을 표명했으며, 특히 학생회는 구체적인 재단혁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단이 보여준 모습들은 황필효교수 재임용탈락 등 최근 몇몇 사건들을 보더라도 학교발전의 염원을 외면해온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동안 재단 활동은 언론보도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비난의 일각뿐이었다. 재단이사회가 열리는 장소만 보더라도 우리학교 재단의 한탄면을 엿 볼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타워호텔이 이사회의 고정개최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회의 비용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혁신 없는 학내주체들의 반감을 피할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먼저 밀실회의, 판권결탁, 호화회의의 온고 저저야 한다. 88년처럼 이사장실이 절거린 상태에 아니고, 신변을 위협받을 것도 없는데 정소를 꼭 호텔로 정해야하는 건지 묻고 싶다.

둘째, 익명인 사립학교법으로 만들어진 정관으로 얼룩진 인사행정, 교육정책의 자율성 확보에 재단이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교직원 인사에 한 부서에 힘을 쏟기도 전에 다시 힘을 써야하는 원치않고 비상사태적인 인사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원임명장을 이사장이 아닌 재단관계자가 수여했다는 풍문도 사실여부를 떠나 재단의 모습이 아닌가싶다.

셋째, 재단전입금확보에 재단이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조계중 중립대학으로 학교재단 이사 자리는 명예로운 직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학교발전이 쏠리는 이사들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신문에서도 누차 제기되었던 동창회 이사들의 기여이사와 이사수 증원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이사선임의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 '한번 이사는 영원한 이사'라 표현해도 무색한 재단이사들의 장기집권은 학교법외의 큰 원인으로 꼽힐정도로 학내주체들의 혐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8명이사 유임과 11월 이사장선거를 놓고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가 먼저 나설것을 공언했고, 남은 2학기 임정의 중요한 학자부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9.16일 누차 재단이사들을 통해 재단이사선임과, 비리관계자 퇴진을 주장하며 학자부선임대회를 구성해 재단 혁신 투쟁에 온 힘을 부어왔던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학생회 선거시기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동원으로 11월 이사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8명이사 유임은 조계중 중립학교 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정면대립 되고 있는대다가 학생회등 학내주체들이 재단투쟁을 선언하고있어 재단의 진로가 밝지만은 않다.

재단이사들은 살신성인의 결단을 요구받고있다. 조계중 중립분규와 개학사립학교법 속에서 학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구성원들대로 재단의 전횡에 대한 불만이 없지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학교는 발전의 토대들을 차곡차곡 쌓아고 있다. 차제에 재단이사들은 학교발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무었인가를 자각하고,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지난 15일 양곡유통위원회는 일반계 수매가 9.5~10.5%인상, 수매량 7백만~8백만석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위가 결정할 근거는 90%한계급 생산비보장을 위한 인상요인 5.2%와 소득보장을 위한 4.4~5%를 합친 것이다. (이는 작년 전의인 10.5%와 비슷하고 수매량은 작년 850만석보다 1~2백만석 줄 것이다.) 최종결정까지는 앞으로 금주내에 농민수산물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다음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경제기획원의 수매가인상률에 대해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수준에 육박한 것을 계기로 3~5%인상(통일벼 등)에서 주장해왔다. 또한 산지 쌀값보다 높은 수매가를 더욱 높여주면 유통경로에 혼란과 곡이 생긴다는 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만이 지난 83년부터 추곡수매가를 동결해오고 있으며 일본이 90년 수매가를 1.5%인하한 사실 그리하여 수매가 10%인상은 쌀값을 일본보다 비싼 세계의 일부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양곡위원은 한자리수인상내에서 정부방침의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을 뺀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은 각기 그 이상의 인상률과 1천만석 이상의 수매량을 요구하고 있다.

수매가 인상률과 수매량은 UR과 수입개방등의 여건에 의해 농민의 쌀에 대한 의존이 커진 점에서 정부와 농민간,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정치권간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우선 수매가인상률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추곡수매가를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지를 생각해볼까.

각 기관에서는 농민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하여 각 가격에 대해서 전년 대비가격상승률을 적용하고 각수확에 대해서 3년평균 증감률을 조정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계생산비를 추정해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노임을 어떤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앞서 본 양곡위의 5.2%한계생산비 인상요인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의 한계생산비 보장 및 도시·농촌간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올해 일반벼는 24%인상(131,919원, 80kg 2등급 기준), 통일벼는 10.6%인상(110,352원)되어야 하며 농가회망 전량 수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노력비가 23%, 농약·비료·농구비가 11.8%

및 '소득조정방식'이라는 절충안을 가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9.4%에 88~90년 3년평균 도농간 소득격차를 95%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10.4%의 소득보장을 위한 인상요인을 더한 19.8%에서 최근 3년간 미국자금대출로본 4.8%를 차감한 15%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비를 결정하는 세부적 내용에 관한 논란은 국민경제내에서의

도 하루 5홀에 해당하는 양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또 팽귄 고기에 걸려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한달 식료품비 가운데 쌀 지출비는 18.6%밖에 안되므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쌀소비량 120kg이므로 하루 주식비 300원 한끼당 1백원으로 겹잡아 볼수 있다. 이치럼 쌀은 쌀값에 관한 논란은 국민경제내에서의

등 재정입력이 크고,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야하며, 통일벼의 경우 양곡소비비전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매를 대폭 줄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수매를 확대나 소득보전 방식보다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이에 대하여 농협은 1천1백만석, 여당도 1천만석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쌀은 한국에 있어 식량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정 정도의 경제규모를 지닌 선진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다면 미국 183%, 영국 111%, 프랑스 179%, 독일 95%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식량자급률이 43%수준인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쌀은 보리와 함께 농업부문의 고용에 따른 자원이용, 도시문제 완화, 식량안정화 기능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 처럼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막대한 것이다.



강승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정부, 전체 경제여건 핑계로 농민요구 묵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값 강조하며 동결주장 최소한 농민문제만이라도 민족자주 생각해야

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곡위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농업노임수준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농민단체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주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책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도농간 격차를 항구화시킨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도농간 노동력의 질의 차이를 지나치게 무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경우 '물가

농업의 역할에 대한 평가문제와 함께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에게 있어 쌀값은 무엇을 말하는가. 88년 경우 하루섭취하는 열량 가운데 쌀의 기여도는 43.9%를 차지하고 단백질 섭취량 가운데는 28.2%를 차지했다. 빵만 가지고 인체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성인인사람이 하루 3kg을 먹어야하는데, 쌀은 100g으로 인체당 백질을 88g 만드므로(빵은 30g 정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과정에서 올해 쌀 수매량을 600만석(일반벼 4백 50만석, 통일벼 1백 50만석, 90년에는 통일벼 4백50만석, 일반벼 4백만석 총 850만석을 수매하겠다고)으로 제시했다. 수매에 대한 정부 방침의 근거는, 정부가 재고가 1천5백만석으로 사상 최고(최정수준 6백만석) 수준인 데다 연간 보관 관리비만 4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쌀로 단축화돼다시피한 현재 농업의 주체인 생산자들의 의욕을 고려한 수매정책이 필요하다. 생산비를 무시하고 전체 경제여건에 따라 수매를 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수매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강승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이러한 점에서 볼때 먼저 밀실회의, 판권결탁, 호화회의의 온고 저저야 한다. 88년처럼 이사장실이 절거린 상태에 아니고, 신변을 위협받을 것도 없는데 정소를 꼭 호텔로 정해야하는 건지 묻고 싶다.

둘째, 익명인 사립학교법으로 만들어진 정관으로 얼룩진 인사행정, 교육정책의 자율성 확보에 재단이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교직원 인사에 한 부서에 힘을 쏟기도 전에 다시 힘을 써야하는 원치않고 비상사태적인 인사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원임명장을 이사장이 아닌 재단관계자가 수여했다는 풍문도 사실여부를 떠나 재단의 모습이 아닌가싶다.

셋째, 재단전입금확보에 재단이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조계중 중립대학으로 학교재단 이사 자리는 명예로운 직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학교발전이 쏠리는 이사들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신문에서도 누차 제기되었던 동창회 이사들의 기여이사와 이사수 증원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이사선임의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 '한번 이사는 영원한 이사'라 표현해도 무색한 재단이사들의 장기집권은 학교법외의 큰 원인으로 꼽힐정도로 학내주체들의 혐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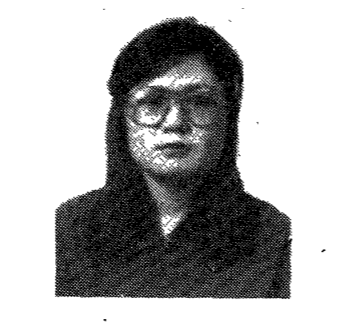
아무튼 이번 8명이사 유임과 11월 이사장선거를 놓고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가 먼저 나설것을 공언했고, 남은 2학기 임정의 중요한 학자부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9.16일 누차 재단이사들을 통해 재단이사선임과, 비리관계자 퇴진을 주장하며 학자부선임대회를 구성해 재단 혁신 투쟁에 온 힘을 부어왔던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학생회 선거시기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동원으로 11월 이사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8명이사 유임은 조계중 중립학교 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정면대립 되고 있는대다가 학생회등 학내주체들이 재단투쟁을 선언하고있어 재단의 진로가 밝지만은 않다.

재단이사들은 살신성인의 결단을 요구받고있다. 조계중 중립분규와 개학사립학교법 속에서 학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구성원들대로 재단의 전횡에 대한 불만이 없지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학교는 발전의 토대들을 차곡차곡 쌓아고 있다. 차제에 재단이사들은 학교발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무었인가를 자각하고,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동문/칼럼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한 학교생활이었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경험하며 내인식의 틀을 마련하고자 동문서주했던 가을 캠퍼스를 거닐어 본다. 평상시에도 가끔은 오르던 교정이었지만 가을은 유난히 나를 반성시키고 되돌아 보게끔 충동칠한다. 그리고 또한 어떤 품처럼 지친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었다. 영화를 전공

했던 나는 자연스레 영화계로 연결되어 지금까지 영화관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영화는 오로지 내내의 절대가치라고 믿으며 좌충우돌하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제법 안정감을 찾고 있다. 주기적으로 오는 영화와 개인적인 삶의 갈등, 우울함, 고독 등도 이제는 즐긴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영화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은은함으로 부딪히며 극복하려다 보니 처음 영화를 시작할때의 흥분감은 없어지고 솟아오르던 좌충우돌하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제법 안정감을 찾고 있다. 주기적으로 오는 영화와 개인적인 삶의 갈등, 우울함, 고독 등도 이제는 즐긴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영화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은은함으로 부딪히며 극복하려다 보니 처음 영화를 시작할때의 흥분감은 없어지고 솟아오르던 좌충우돌하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제법 안정감을 찾고 있다. 주기적으로 오는 영화와 개인적인 삶의 갈등, 우울함, 고독 등도 이제는 즐긴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영화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은은함으로 부딪히며 극복하려다 보니 처음 영화를 시작할때의 흥분감은 없어지고 솟아오르던 좌충우돌하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제법 안정감을 찾고 있다. 주기적으로 오는 영화와 개인적인 삶의 갈등, 우울함, 고독 등도 이제는 즐긴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東國漫評 승태영

제112회 재단이사회

동국가족 여러분...  
안만 생각해도 동대 이사로서 우리보다 더  
관심 사란들... 있는 것 같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유임을 결정했다.

힘에 겨울때 어느덧 발길이 머무는 곳은 동악의 교정

나를 버리는 처절한 작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비틀거리며 힘에 겨울때 자연스레 발길이 향하던 가을교정을 이슬렁거리며 스스로를 위한 발판인 캠퍼스, 우배들의 진실한 삶의 열망, 순수, 정의를, 용기를 품어주어준 하얀 구름과 푸른 하늘을 헤치고 다녀본다. 그리고 나면 난 새로운 용기와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우리나오는 절실함을 표현하고자 욕구가 생긴다.

중도에 좌절하기엔 이미 난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충혼을 바쳤던 내일을 포기할 용기는 도저히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용서시켜가며 발전된 나로 다시금 일어 서야한다. 최소한의 경비로 아무목표없이 돌아와 날개를 예징하지 않고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가을산수를

코파 한달동안 해보기도 하고, 술을 질릴때까지 퍼마시고 자신을 학대해 보기도 하며, 도망치듯 도시로부터 내일인 영화로부터 사람들로 부터 탈출해 반도끝 섬으로 숨어 보기도 하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고있다. 타협과 타락과 조잡한 생존으로 퇴색되어진 나를 버려야한다. 마음을 비우고 빈 여백을 만드는

을 물리고 있었다. 평화롭다 못해 눈물까지 절금줄만 나온다. 자연의 법칙은 단순하면서도 평화롭고 경건하다. 인위적으로 나를 만들고 부분 별하게 조각하고 깨어맞추고 힘들어 했던 나를 털어버리고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고 있다. 어기에 떨어지는 낙엽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비틀거리던 지난 날은 사라지고 삶의 환희로 바뀌는 봄날의 캠퍼스를 연상해 본다. 다시금 후배들의 순수하고 삶의 열정을, 반짝이며 늘 깨어있는 인식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미래 (영화감독·연영과 80졸)

다들어 내자신으로 부터 자연스레 용수를 치는 조용한 반란을 기대해 본다.

목 먹골

- 도석이형 귀백진날 축하합니다. 아울러 내일모레 호순이 생일도 축하합니다. -Y.H. 12기
- 정진의 스물두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문과대동기들
- 21일은 지교과 '91의 영원한 일화. '경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만수무강하고 운 거울이 오기전에 따스한 난방기(에인) 꼭 구비하기를... -Michael
- 아마추어 농구부가 올 여름에 열렸던 경기대 총경에 전국 아마추어 농구대회 출전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연세대에 서 개최되는 전국 아마추어 농구대회에 출전합니다. 동악인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치유어 농구부 8기 일동
- 오늘(23일)부터 시작되는 경상대축전이 성황리에 치워지길 바랍니다. -경상대 어느 한 학우
- 15기 용호에게 잔바람이 불면 난 열심히 구르고 있었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건강하게 있어라. 그리고 건강하게 만나자. -J 15기중 제일 이쁜 韓 DOLL
- 취임, 졸업, 대학원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4학년 선배님들께. (특히 이형이형 Every day has his day /) -농성 '91 귀여운 후배들이

동악! 광장

- 혁아 / 생일을 축하한다. 성인이 되었으니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해라. -政外 '90 일동
- 27일 열리는 추계대학도 대회에서 해동이와 동대 점도 부 학우들의 팔팔한 땀방울을 우승점으로 받아오기를... -현중
- 동연계 준비하느라 혼신을 다해준 통계조사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가을, 어려운 결에 따뜻한 사랑이,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 하길 바라요. -DUSSA Angel
- 11월13일 불교학생회의 생일을 미리 축하드려요. ■7:내가 은영이보다 이쁘다면? L:당연한 소리 아니냐? L:은영이가 '꽃'에 있다. L:'꽃'이 뭐냐? 병우, 준우: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참신한 화학과와 소모 인이야. G, L:그리곤? 은영, 용우:더 알고 싶은 사람은 오라나. ※나도 한마디:'꽃'은 짓밟힐 속에서도 다시 서는 생명력을 의미한단게. -화학과 소모일 '꽃'
- D.U.C.A. 우동사요. 우리 동아리 사람들은 오래요의 열전! (열전 달리는 구요일) 참가자, 꼭 여왕을 구해서 원시열 군대가는 기념으로 영겨주자. -범미(87기)
- 구동도가 회원 여러분/ 행사준비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회장
- 농생과 소모일 금강초등학교에서는 오는 11월일까지 해방관 2층 로비에서 삼이초 전시회를 했습니다. 많은 참관 바랍니다. -금강초등학교
- 상남이가 그린 만화가 드디어 1만 동악인에게 발표됐습니다. 축하한다. 상남아! -수로
- 원준씨 / 최종합니다. 생일인줄 알았더라면 직접 찾아가 사랑의 선물을 듬뿍 안겨드렸을텐데요. 우리의 멋진 삶과 사랑을 위해서 함께 UBF나 갈까요. -나의사랑 나의신앙에 주희
- 행정학과 '90어석민에게 그대를 에타게 찾는 이가 있음은 그대는 아시는지요. -Young
-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서로 시작할 공부 서로 도와주자고 전합니다. -소낙비 꼬마가
- 6년후 신부가 '될 색시 핑크에게 쪼꼬' ■오랜 방황과 지친물에 맑고 빛나는 눈빛을 가지러 애쓰는 그대에게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더욱 변화발전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기뻐하며 맑고 강한 사람으로 당신에게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손
- 라이브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가운이라고 하기에 너무 쌀쌀한 날씨입니다. 올해로 일한 번째를 맞는 '바리새'의 라이브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24일) 오후5시30분 문무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들, 지난 이가
- 명화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모임인 '소낙비'에서 어제(22일)부터 내일(24일)까지 3일간 열린 영화만 골라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감동시켜드립니다. 매일 오후1시, 3시, 5시 3차례 방영합니다. -소낙비 꼬마가
- 참신하다! '청년허준'은 한의대 노래가 '송이저, 송이저 누렁송이...'라고 소리높여 부를 수 있는 학우면 누구나 가승합니까. 한 의학관 401호실 뒤 청년허준 사무실에서 신입회원들 무기한 모집합니다. -'청년허준'모두가
- 필하모니를 아세요? 나입, 사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원호관 중정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필하모니에서
- 동지를 우리끼리 열세 '내담교도소'는 겨울입니다. 밖에 있는 우리가 저녁이면 돌아갈 따뜻한 아랫목이라도 있지만, 차가운 강변에서 서 얼싹 부는 강순호, 최현철 동지에게 따뜻한 소식 전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31일은 최현철학우의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동지들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하늘·땅의 사람들'모두가
- 예술혼을 기억하십시오. 온가슴을 열어내어 오직 하나 작품을 위해 슬픈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저희들의 분신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오는 24일까지 서리번 문화회관에서 열두번째 재학생 미전이 열립니다. -지영이가
-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내일(24일)까지 선진학과 교내 동아리대회를 위한 행사가 동아리연합회주최로 열립니다. 동아리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5대 동연에서
- 표창회를 열니다. '소리로야'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오는 28일 오후5시 원호관 소강당에 오보시면 아마, 감쪽 놀랄것! -'소리로야'의 대빵이

온 방골

동악광장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장이 되어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획시리즈 다섯번째

독일을 모델로 한 남한의 흡수통일노력

# 통일은 정세에 따라가는 외교정책일 수 없다

하나의 평등어린에서 한 깃줄을 이루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던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라는 뜻이 어려운 오명은 분명 우리 민족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타민족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었다. 그야말로 서구 열강의 땅따먹기 시합에 이어없이 달려온 희생제물이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댓가를 요구했으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억압의 쇠사슬이었다.

분단의 요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이 계속 단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 민족에게 이제 타민족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거저 얻어지는 부산물로 여겨서는 안될 바로 민족자주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남한 민중들의 자주적인 통일노력은 계속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좌절되어왔고 현재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의 통일노력은 분명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바람과는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남한정권의 통일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방안과 비교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모범이라고 하는 독일통일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 독일의 흡수통일

남한 정권의 통일문제를 세계 정세에 의지해 풀어나가려는 노력은 그들의 외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공산권과의 비수교 원칙에서 1960년대는 제3세계, 1970년대는 공산권과 외교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들 대부분이 반미·진소적 외교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UN에서의 남북한 외교경쟁에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동안 발생한 동구권의 변화는 분단의 현실속에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어떤 흥분과 기대감을 주었고 그것에 발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긴장감을 동시에 주었다. 동북 또한 동구의 민주화 대변력의 불결을 타고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데 이어 공산통치를 끝내고 결국 동독이란 국가의 종언을 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산체제인 동독의 몰락과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은 우리의 관심을 또다시 북한으로 돌리게 하였으며 흡수통일 북한도 자체를 남북에 구원을 요청해 오지 않았는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한 것도 사실이다.

분명 동서독 통일에서 한반도와 상이한 환경이었던 불구하고 어떠한 표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부류이나 폭력과 같은 강압적 수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공동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공동목표의 추구는 주권이나 결정권의 독립적 속성의 포기나 전제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기 통합운동의 정치 접근 중심의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한 공동이익의 차원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서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기능적 협조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통합이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단국 통일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동질성 회복'이 절제 갈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통일로 이끈 국내적인 환경은 양측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이 신뢰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기본조약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인적·물적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것

동주의적 접근방법은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부득이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이 이데올로기 문제들까지 극복하면서 통일에 접근할때는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한계를 느끼는 과정을 겪게되는데 이 때문에 정치적 단계를 중시하는 연방주의적 접근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분단국 통일의 접근모델이든 국내적인 환경은 양측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이 신뢰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기본조약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인적·물적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것

## 글심는 차례

1. 국제정세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일노력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8. 총괄

국제 동질성으로만 정의를 내린 반면에 브란트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국제법의 주체로는 승인하지 않는 '독특한 관계'의 양쪽관계를 규정짓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민족통일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서의 서독은 독일문제의 현실성, 동독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긴장완화정책을 통한 협력체제를 증대시키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을 채택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로서 통일문제를 구체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민족공동체의 개념과 그 성격의 불명확성 때문에 그 실상을 연방, 국가연합, 유럽공동체형 등의 정확한 개념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남북의 협력체 정도와 성격이 가늠될 뿐이다. 남북한이 민족적 동질성을 갖는 것은 상의인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반복적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부

# 남한, 동독에 용기백배하여 흡수통일 추진

## 독특한 관계 인정하며 한반도 상황맞는 통일방안 찾아야

### 북한, 정치적 접근 단계 병행하는 연방제



이대, 여기서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동독이 정치지도자들의 탁월한 경험이나 정책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통일 열망에 의해 추진되고 기능주의적 방식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통합이론의 이 방법은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경제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

확신은 우리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상사업상에서도 크나큰 원칙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서독의 브란트는 "민족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 나아가 국가 및 사회질서 등 이상을 총괄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견해로는 민족통일이 존재한다. 민족의 통일은 귀족에 의해서도 우리측에 의해서도 없어질 수 없다."

이처럼 동독은 민족을 이데올로

## 남북의 통일정책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정책은 어떠한가. 지금도 남북한의 국제정치 상황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남한은 6공 들어 자유화, 민주화의 열기로 통일문제가 재부각되고 있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대개혁, 중공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북한의 앞으로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정책-남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사이에는 엄청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열기속에 탄생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자주적, 평화적,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는 통일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는 북한체제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적 통합이고, 최소한으로 북한체제가 통일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통합형 통일방안이다. 그런데 이 연방제의 전제조건은 다른 어떤 의도보다 무력적 화해노선이 절제 갈려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남한사회의 민주화,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배제 등의 그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노선은 자주·평화·민주를 원칙으로 하며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민족공동체통합을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고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통일연방

로 생각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북한의 실체를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연합, 연방, 체제연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부터 조적, 운영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정상과 당국위주로 추진되고 국민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북평의회가 단지 자문 임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모든 현안문제는 각료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살펴보면 두개의 조건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방안으로서 남북연합 단계는 북과 남이 각료회의, 정상회담을 제도화함으로써 '두개의 조건'을 합법화하고 남북관계를 공식적인 국가간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통일정책의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상호간의 통일에 대한 시각의 결정적인 차이와 상호불신이 깊게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아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특수성의 문제 때문에 다소 거리감을 주고 있다. 다만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상호간의 신뢰와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개념적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정아  
(본교동문)

## 노동법 개정 공청회 초록

국제노동기구(ILO)가입에 따른 노동법 개정방향이 노동부, 한국경제인 총연합, 노동운동계등 각단체에 따라 이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노동운동계는 '정부주도의 법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92-93년 선거투쟁까지를 바라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11일 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의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LO가입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비록 민주당, 노동부가 불참했지만 각 단체의 다각적인 의견이 논의돼 주목을 끌었다.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ILO가입과 노동법개정 방향에 대한 신인행(이대 법학과)교수와 오길성(전노협 부의장)씨의 기조발제, 피정선(국제노동연구소)씨 등 토론자 6명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자들은, 교원·공무원의 노조활동금지, 제3차개입금지, 해고노동자의 노조활동금지 조항등 정부부의 개정유보내용에 대해 '개속되는 노동운동탄압'이라는 의견들을 같이 했으며 북수조조항에 대해 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확산되고 있다. 11월10일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토론회·공청회·기부시위등 다양한 형식의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노동법개정투쟁이 우리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만큼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선거투쟁까지를 바라는 방침이다.

△ILO가입과 노동법개정의 연관성(피정선·국제노동연구소 소장)=ILO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UN회원국인 UN헌장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ILO의 핵심조약인 제89호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등한 노사관계'이고, 이것이 곧 ILO노동정신이다. 11월 중순, ILO 사무총장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제정된 기술직노조 삭감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표가 계획됐는데, 이후 정부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질적인 노동법개정(김진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법실무적인 차원에서 정행행에 대한 불필요한 재판이 많은 만큼 노동법에 의하지 않고도 국가보안법, 포공법, 집시법등 제반법규를 이용,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사례가 다반수다. 특히 제3차개입금지 조항은

## ILO, 교원·공무원 단결권 보장

### '제반악법 개폐투쟁'과제 넘겨

이에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의 주요부분을 요약 받겠다.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철폐조항(신인행·이대 법학과)교수)=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나, ILO는 이를 근대·경향과 같은 공무원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정부의 개정유보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2항 58조1항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단결권활동권 금지도 ILO-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제82장)에서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고용주간의 교섭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반기 노동운동의 방향(오길성·전노협부의장)=지난 88년 노동법개정투쟁 때보다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과 그 질실함이 대동적으로

법해석상의 애매한 표현이 있어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등 제반악법의 개폐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에 의한 노동운동탄압은 계속 자행될 것이다. △자본가의 노조와해정책(박영배·현대자동차노조 부위원장)=최근 들어 자본가들은 기업운영면에서 경영행위대 적당배제, 시간제 근로자고용 등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투쟁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노동운동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공청회는 노동법개정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노동법개정투쟁에 제반악법 개폐투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동운동계의 두가지 과제를 남겼다.

(이병민 기자)

## 10월23일 대학원 학술 심포지엄 초록

90년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사와 그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한국사회의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90년대 들어오면서 출판된 '마음의 감옥(김원일)'등의 작품에서 송희복씨는 작품내에 형성된 지식인 주인공의 모습을 추적하고 있다. 그후작의 결과물로 송씨는 극우와 극좌의 몰락'을 여러작품 속에서 읽어내고 한국사회의 중대적 통합 전망을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세계사적 변화를 계기로 국내지식인, 연구자들 사이에는 논쟁거리가 되고있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한국사회의 대한 적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임영민씨

는 국내사민주의자들이 "변화하는 현실을 근거로 자본주의 그자체에 내재하는 적대적 모순을 자본주의 내에서 개량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의 최대적 모순을 부정하고 노동운동의 보편적 발전을 부정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하고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의 수용은 '미래에 대한 개량'이자 '신보에 대한 이행'이며 현실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사회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결론 짓고 있다.

한편 황유철씨(일학 박사4학기)의 '우리나라 환경오염실태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은 환경오염을 대기, 수질, 토양, 쓰레기 등 네가지 면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해의 원인을 기업의 지역적 집중, 중화학공업의 팽창, 지방기업의 과도한 성장집중,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양식, 공해의 수입등의 문제제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부)

오후 3時,  
출출함으로부터의 자유!

젊음은 언제나 약간의 허기,  
사랑도 고프고...  
자유도 고프고...



해태제과

#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되라”

### 취업시즈를 정리하며

###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주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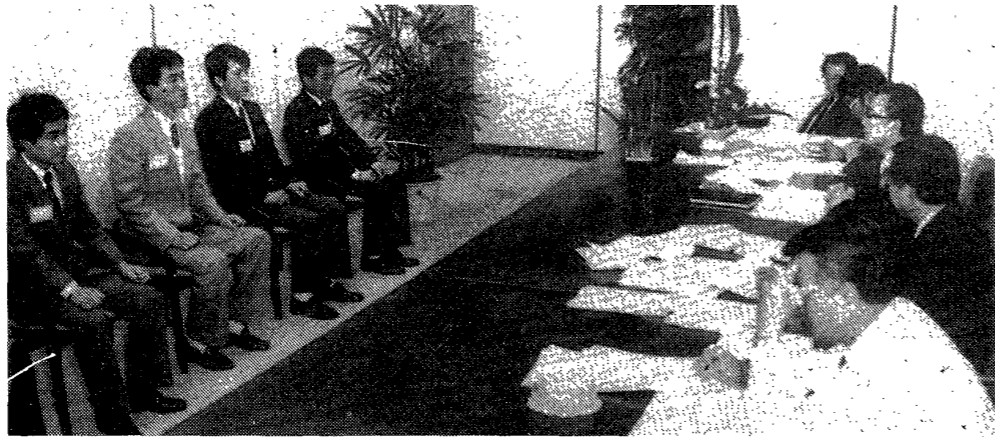
매년 이맘때면 그러하듯이 요즘은 4학년 학생들의 취업상담으로 붐비는 방과후를 만난다. 반가운 방문은 취직되었다는 보고차 인사오는 학생이고, 그보다 더 반가운 방문은 겨울방학이 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 줄 때이다. 더욱이 그들이 “교수님, 훌륭한 후배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하며 인사서류를 주네 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취업상담을 이해하고 풀어주려고 평소 노력은 하고 있으나, 나 스스로 늘 아쉬움 속에서 꺼림칙하고 만족해 하지 못하고 있던 터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 바쁜 시간을 쪼개는 내 입장을 이해하여 간단한 시간을 줄여 주신 것을 써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성실은 상담에 용하나 그저 ‘우는 아가에게 몇 더준다’는 식의 즉흥적인 처방이 고작이었다. 평소 미안했던 마음에서 졸업, 아니 새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취업에 임하는 자세 및 마음의 준비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건네기로 한다.

우선 취업에 어떻게 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취업은 직장을 얻는 것이다. 직장은 일터이고 일은 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직장은 다시 말해 가치의 생산 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이전에 삶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 일에 대한 자아관 정립이 중요 확실한 직업관이 삶의 의미 부여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은 보통 귀찮은 것, 힘든 것, 하기 싫은 것이 아닌가. 일은 옛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 아닌가. 그러나 일은 누가 뭐라하여도 신이 인간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돈이 많아 먹고 노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던가? 등, 산간 마로리(Mallory George Leigh)는 “왜 산에 오르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바로 땅을 훑은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정 자신의 일을 찾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자이다.

결국 우리는 취업을 위한 취업이 아니고, 인생의 긴 안목에서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거나 기업

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면담요령을 익혀서 이름이 있고 보수가 좋은 회사에 취업이라는 관념을 통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직장, 자신의 꿈을 펼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 말이다.

다음에는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회사는 유능한 사원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능한 후보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추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시 유능과 무능을 구분하는 능력의 수준, 자질의 종류, 그리고 품성의 척도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첫째, 능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어느 분야든 능력은 거의 인

정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특히 우리 동국인의 수준에서는 B+ 이상이면 열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누가 뭐라해도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오와 야심을 가진 사람이 기업인의 눈에 띄일 것이다.

둘째, 기업이 원하는 자질로는 독창성, 지적추구, 지구력, 도전의 정신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자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자질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에 적응하는 도전의 정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발전은 바로 도전에 있기 때문이다. 도전은 답이 없는 것이므로 투신으로 정답을 잘 맞추는 능력과는 별개의 길이다. 바로 자신과 조직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셋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의 품성은 의욕, 협동심, 정중력, 적응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생리에 맞출 수 있는 태도의 소지자를 말한다. 바로 기업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며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발굴하고 키울 것이다.

위의 세가지 자질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기업이나 사회는 “인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인재에는 ‘인재(인재는 불리일키는 사람), 인材(우수한 재목), 그리고 인材(다이아몬드와 같은 인간보배)의 4가지가 있으며, 기업에서는 단지 5%에 해당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스스로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섰으리라 믿어진다. 진실한 사람, 확실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사람, 자신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회사의 인재로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다.

이 승 영 (무역학과 교수)

## 북한 민법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의 발전은 선제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지배를 받았다. 맑스는 법을 상부구조로 규정하면서 그 도구성을 지적하였지만, 스탈린시대에 이르러서는 법의 상대적 독자성을 긍정하게 된다. 물론 개인 자유 사적 자치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민법보다는 계획 경제관계에 근거를 두는 사회주의 민법의 규율대상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1950년의 민법초안과 1958년의 이른바 민법 제2초안의 결정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체도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별다른 법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민사법의 처리를 ‘민법초안’ 및 ‘민사규정’(86.1.30. 중앙인민위 결정)의 사안 별관규정과 노동당지침 등을 준용하여 해결해 왔다. 이러한 상황

관계와 채권채무관계를 특히 중요시한다. 민법의 사명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제도 및 물질기술적 토대의 공고화와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보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개인성보다는 전체성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북한의 통치철학인 주체사상이 민법의 지도원리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은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공고화와 계획경제의 대원칙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의 인민적 이익만을 보장하므로 집단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민사권리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공민의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면에서 사회주의적 제약성을 부과하고 있다. 2차적으로나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발전된 사회주의 입법에서 크게 깨를 이탈한 법이론임이 분명하다.

제3장에는 법률행위의 형식·유효조건·무효와 취소 및 그 법적효과·대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대리

(점유, 이용, 처분권한), 보호(소유불변원칙, 소유를 실현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국가 및 사회주의 생활규범의 적함) 및 공동소유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제2장~4장에서는 국가소유의 특수성(소유대상의 부재한성, 국유재산의 개인소유불가성), 협동단체소유의 특수성(단체 근로자들의 집단소유성, 전리실현의 민주성, 개인소유의 특수성(소유 객체의 제약성: 소비적 목적을 위한 물품에 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소유의 원천을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추가적 혜택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소유권의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제3편: 채권·채무제도

북한민법상 채권채무관계 발생의 핵심적 기준은 계약인데, 정통Marxism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회의적인 법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대응의 불가피성에 있다 하겠다.

# 주체사상이 민법의 지도원리

## 올 4월, 총 4편 271조 민법제정 소유 - 채권 채무관계 특히 중시

에서 북한은 '90.5 제9기 최고인민회의 이후 그동안 유보되어 오던 민법안 심의를 재개하였으며, '91.4.11~13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 기간중 이를 안건으로 채택·승인함으로써 정권수립 43년만에 최초의 민법전(총4편 271조)을 갖게 되었다. 북한 제정민법의 기본구조는 우리민법과 같이 독일의 판례법(Pandekten System)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법적 성향상 가족법을 민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를 위임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하고 있고,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관책임 인정할 만한 민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2) 제2편: 소유권제도

1789년 프랑스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Code Civil)이래 자본주의 제국은 소유권제도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적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기 때문에 소유권관계 규정의 실용성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민법상 소유권편은 일반규정·국가소유권·협동단체소유권·개인소유권에 관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에서는, 소유권편의 구성(지적소유권등 무체재산의 소유부인), 소유권의 발생기초(법, 계약, 상속, 증여 등), 내용

1장은 채권채무의 일반규정으로, 채권채무의 개념·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채무이행절차·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적 계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규율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장과 3장은 계약제도를 규정하여 계약을 계획적 계약과 일반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적 계약에 대한 요건의 엄격성과 강한 의무성을 부과한다.

4장은 법정채권채무관계의 발생 사유인 부당이득과 그 효과로서의 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제4편: 민사책임 및 시효제도

시효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이해하여 단기적 시효(최장시효:1년, 최단시효:3월)로 규정하고 있다.

## 동약로

지난 9일 '동국학원을 위해 아무런 부자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사진은 미련없이 물러나라' 등의 요구안을 실은 총학생회(회장=정우석·철학4) 명의 대자보가 붙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도서관 앞에서는 '무능부패재단 혁신을 위한 1만 동약인결의대회'가 총학 주최로 열렸다.

"지난 10일 재단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열린 제112차 재단이사회의에선 1만 동약인의 비명을 무시한 채 오죽원 이사장을 비롯해 11월 22일로 임기만료되는 이사진8명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결의한 것임이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교수 재임용 탈락을 사립학교법을 등에 업은 재단의 횡포로 지적하면서 재단 혁신을 위해 '재단이사의 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공개할 것, 8

명의 재단이사 유임을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교내 선전전을 펼친 후 본관앞에 집결, 금방이라도 집기를 끌어낼 듯한 기세로 '강자우 사무처장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8인의 재단

## 재단 탓

이사 유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무기정학, 퇴학까지 각오하고 승진만대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열찬 투쟁의지에 반해 현재 재단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등록금투쟁 당시 합의했던 학교 발전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의 마스터 플랜 제시는 호지부처되고 말았다.

흔하디 학교가 발전하려면 재단의 부자가 많아야 하는 법이라면 서 명문대학임을 자랑하던 본교가 타대학에 밀려난 것에 대해 '재단 탓'을 한다.

무엇 학교의 재단이사회는 분명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장본인들로서 본교의 재단이사 또한 이제 중단의 '이권다툼'을 떠나 대학교육에 열성을 다해야 하는 인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을 뿐... 본관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장문을 통해 보인 몇몇 고적원들의 모습은 무심히 지나치는 학생들에 대한 비웃음(?)

그러나 퇴학까지 각오한 30명의 학사부원들은 시험 또는 선거준비로 바쁜 많은 학생들을 이후 재단 혁신투쟁의 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리만큼 뜨거웠다.

(이경애 기자)

이 승 영 (무역학과 교수)

## 짚막상식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한미행정협정을 떠올려야 한다.

한미행정협정이란 주한미군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협정으로 미군의 범죄가 급증하게 되자 여론에 밀려 지난 7월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면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의 내용을 알아보자.

이 협정은 본래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지 주한 미군이 '원할기만'한 다른 평상시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시설, 물자, 비용, 인력등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유사시 시설·물자·비용 강대국 일방 사용 가능

즉 소비국의 요구가 있으면 전국의 어느 도로건 내준다. △부속 인건 등 주요항구내 미군항의 출입과 정박을 위한 항만시설을 확보해 준다. △공공건물을 미군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미군전용승수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며 게다가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수시로 훈련을 해야 하며 그 비용 일체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 땅이 미국의 병참기지가 된다는 말이다.

미국은 요즘 평화분위기를 조장하며 앞에서는 군축을 외치지만 뒤로는 식민지정착을 더욱 강화하여 군사적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 물러받은 이 신성한 땅이 대를 이어 지배해 온 소수의 패권·독재세력에 의해 짓밟히고, 더구나 그들이 미국을 먹여살리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중의 고향을 팔겠다는 뻔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땅이 미국의 만능구적인 군사기지가 되어 각종 분쟁에 자동개입되게 된다.

따라서 이 전시접수국 우리민중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지원협정은 체결되어도 안되며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운운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부)

슈바빙의 낭만, 라인강의 예술과 기적, 부란텐부르크, 통일독일의 위용 — 그러나 가슴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재원 (산성물산 해외전략팀 근무)

'88년 1월 산성물산에 입사. 지난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독신과전 지역 전무가제로 독일에서 3년간 근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자유롭게 익히고 돌아왔다.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 들렀던 베를린 장벽에서 자신이 직접 건장벽 한 조각을 갖고 돌아와 틈틈이 꺼내보며 그때의 경험과 다음을 다시 새긴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3로

가평 골프장 건설

현장취재 자본주의에 병들고 있는 현장을 가다

안양천 오염실태

골프장건설에 군장비까지 동원

경기도 지역에서 관광자원으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 가평군 상동리 지역은 산세가 좋으나 요즘은 단풍도 한창이라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들이 들끓었다고 주민은 말한다. "저놈의 저 골프장인지 뭐지 때문에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다."

하루종일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가끔씩 목욕이 들려오는 거주민을 바라보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89년 7월에 산림보존대책없이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허가권을 각 시·도로 넘겼으며 5



◇지난 3월13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 골프장 지역주민 권익대회 모습.

눈을 피해 주민들과 함께 개구산 공사현장에 오를 수 있었다. 동들루림 개구산 정상에서 본 풍경은 주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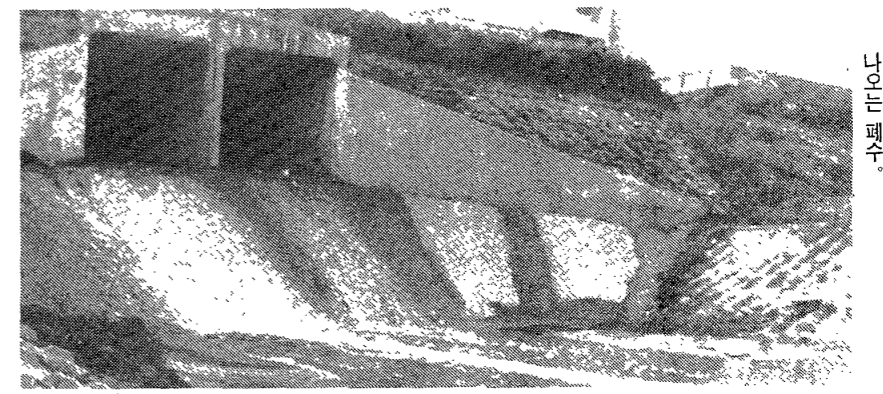
3개의 상공우리가 모두 만으로 갈라져서 파헤쳐져 예전에 자생하던 산짐승들은 모두가 마워새나 흙더미에 묻혀져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유림 불법전용도 문제이지만 75만평에 이르는 금수강산에 대한 훼손은 자연에 대한 만행이라 부를 수 있다. 이번의 골프장 사태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김영일(32세·주민)씨는 "문제는 골프

"안양천요? 말도 못하지요.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시커먼 공중폐수가 생활하수까지 합쳐지니... 도대체 안양시청은 무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양역주변의 시내유동가골목의 한 행인의 말에서부터 나타나는 안양천의 폐수오염은 안양시가지가 형성되기 전부터 안양천변에 밀집한 수십개의 영세기업에서 나오는 공중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시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해결 무렵이면 아저씨들이 드림봉을 가지고 나와 기름을



◇안양천 폐수오염현황에서 촬영

불법 폐수방출이 안양천 오염의 범인

공해추방운동으로 생존권 보장받아야

마구 버리는 걸 자주 봐요. 또 어느때는 검은기름과 빨간기름이 뒤섞여 흘러가기도 하고요."

안양7동 안산는 박지성(덕천교4)군의 달처럼 안양천 상류지역인 호계동과 안양7동의 소규모 공장들은 정화되지 않은 산업폐수를 하수로 버리거나 영세기업 무단방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공해행위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공해방지책이나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영세기업의 폐수 방출을 더욱 부채질한다. 더욱이 안양7동에 위치한 노동부 안양지청은 안양7동 주민내

에 있으면서도 공장의 폐수무단방출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해 '안양7동 영세기업의 폐수가 안양천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안양천 상류지역에서도 악취가 가장 심한 것이 평촌동 생활폐수와 안양7동 호계동 공장폐수가 만나는 덕천교 부근인데, 이곳에서 6년째 산다는 함재봉(안양시청근무)씨는 "여름엔 냄새때문에 문도 못열어 놓는다"며 "개천에서 놀다가는 아이들의 옷에 악취가 났 정도"라고 안양천 오염의 심각성을 말한다.

원래 안양천은 청계저수지(상수원)와 수리산 계곡물을 근원지로 하여, 서울 구로구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내천인데 안양7동 위의 상류는 물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하지만 현재 공사중인 평촌동, 산본동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산업폐수보다 생활폐수가 안양시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20년 세대의 생활폐수처리를 위해 지난해 안양천 양쪽을 흐르는 폐수를 다잡지만 수용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 서중현씨는 주먹구구식인 안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실제로 요즘 안양시도 용량 부족을 배려했는지 하수도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이러한 안양천의 오염 심각

성에 대해 안양 시민·학생모임인 '안양사랑청년회'의 한 관계자는 안양천오염된 안양이 안고 있는 환경공해문제에 대해 안양시민과 연대해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외로 시민들의 공해추방운동 움직임이 없이 지역주민운동 차원의 홍보와 주체적인 공해추방운동을 통해 안양천오염실태를 선전하고 각종 환경정책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한편, 안양7동 주민의 영세기업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병민 기자)

환경영향평가가도 않은채 국유림 불법 전용

공매 12건이었던 골프장 허가를 6공에 들어서는 1백39건으로 남았다.

이로써 이곳 경기도 지역내에도 상동리의 'EAGLES' 골프장을 비롯해서 20여개의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채 국유림 불법 전용으로 건설 중에 있다.

"처음에는 지역개발 활성화다. 뭐다. 뭐다. 건설관계자들의 설득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찬성했었습니다. 저금 생각하면 한마디로 뭘 몰랐던 거죠. 해마다 이맘때면

환경일 개구산의 반나무와 아카시아등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재산이 이렇게 황폐화될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오광세(43세·상동리 반장)씨는 다이너마이트 폭음에 갈라진 자기집의 담벼락을 가리키면서 언더너머 노복회씨는 절소9마리, 절영호씨는 4마리의 소가 유산했다고 일갈하며 주름살까지 찌푸려가며 말했다. 매마침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며 골프장으로 향하는 트랙을 보며 오씨의 입에선 이런 이 곳도 사람살 곳이 못된다고 욕설을 퍼부

었다.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한 상동리 주민들은 9월초부터 환경피해등 보상을 요구하며 골프장으로 통하는 길어귀에서 차량의 출입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등 골프장건설 반대시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주민들 68명을 연행했고 이 마을 부녀회장 반영자씨는 아직까지도 구속중인 상태이다.

아침 일찍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건설업체 감시원의

장건설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내고장을 지켰다며 70세에서 80세까지 이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경찰들은 그분들을 연행했죠. 심지어 건설현장에 지난달 15일경에 군트러 등 군장비가 투입된단 보도 이상상이 어디 주민들의 것입니까. 재벌들의 세상이지"라고 말하며 정부를 비호하여 자본가들의 횡포로 '오르막, 오르막'대는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지는 개구산을 바라보았다.

(송태영 기자)

재벌의 사회복지재단 설립 속셈

변칙상속등 독점강화 수단으로 이용

현대그룹 등 재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기의 재산 모두를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진의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성 발언", "대기업들의 탈세와 변칙상속의 장구"로서의 활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 문제를 관련하여 재벌기업들의 재단설립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기업들은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독점자본에 의한 국제분업구조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채 초과이익을 수탈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 부동산 투기등의 친권적 방법을 의해서, 저국가-저임금 논리에 바탕한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기본으로 진행한 자본축적의 과정이었다.

이와같은 재벌기업들의 상대적 안정화와 민중 생존권 침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비판에 대응

하여 70년대 이후 재벌사의 문화재단설립이 활발해졌다. 실제로 재벌사의 문화-사회복지재단 설립은 일제시대 삼양사의 양영회를 표지로 60년대 중반까지 공백기를 보이며 65년에 삼성미술재단, 쌍용 그룹의 성유학술문화재단과 언론문화재단, 럭키금성의 연전문화재단의 4개 재단만이 설립되었고 독립자본의 축적이 본격화된 70년대에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기업문화재단 설립 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재단 사업들은 정부의 유도정책에 따라 구색만 갖춘 것이었고 80년대에 들어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수백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사업분야의 전문화, 다양화, 내실화 추구 등 재단사업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의 양적 확대는 재벌사들 자체의 부정적 성격에 제약되어 명목상의 규범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단은 그 본래적 규범과 상반되게 재벌의 변칙상속, 증여의 수단, 독점강화에 따른 재벌

소유 유지·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설제로 지난 10월 11일 한진그룹의 경우에도 정부 5.8조원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편입된 땅을 사들이는 이상으로 있는 21세기 한국연구재단에 기증함으로써 사용권을 확보하는 변칙중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재단의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성을 공식화하고 2차적인 기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재단설립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재단사업이 기업전체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사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성과 관리가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관리면에서 외부공개를 금기시 하고 있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즉 재단의 변칙적 운용과 문제점들이 재벌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한 재단 사회복지 활동의 질적 도약은 어려울 것이다.

이상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

10월의 소사

10월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먼저 1979년 10월 16일의 부·마항쟁을 들 수 있다.

이 항쟁은 그 지독했던 유신독재정권하에서 일어난 최초요, 최후인 유일의 민중항쟁이다.

이 시위는 원래 부산대에서 은밀하게 15일로 계획됐으나 지도부와 학생들의 잇달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6일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7천 여 명이 결집, 골도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파울스와 인공기관을 제 1의 표적으로 삼아 투쟁을 전개했다. 인파는 곧 5만대로 불어나구

경계위기가 심화되었고 결정적으로 YH사건이 도화선이 된것으로 해방이후 제국주의의 침략, 반민중 배반세력의 수탈과 착취, 독재집단의 횡포와 모순을 극복하려는 반제민주화 민중해방투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민중항쟁의 출발점과 아울러 유신독재는 독재의 시범인 폭압적 상황을 뚫고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대규모 민중항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하나 시위를 장식하는 사건은 1987년 10월 28일에 일어났다

◇부·마 - 건대항쟁을 되돌아보다

황소31입체작전에 "무지개 떴다"

건대항쟁이 바로 그것인데 총선 결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던 그 당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이 건대에서 열렸다.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29개대학 2천여명이 참가한 이 발족식에서는 애학투련 발족선언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추진, 미·일경제침략저지를 위한 백만화도 투쟁선언문, 전두환일당 장기집권으로 분쇄와 민주 재건리정투쟁등을 선포했는데 1시부터 열일 예정이던 이 발족식은 다른 집회때와는 달리 아무런 공권력의 대응도 없

었고 과격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등 평소의 다른 분위기와 달리 집단적 집회·마치며 순서로 레인전 미대통령, 필리 주한미국 대사, 나가스네 일본수상, 전두환 대통령을 화형시켜 총동원되어 교내로 난입한 것이 워낙 순직자의 열이 다 감축학생들은 급하게 건물안으로 피신해 싸우다가 건물안에 갇히게 되자 사전 준비되지 않은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공산혁명'의 난동이라 선전했으며 경찰은 의약품, 식량, 옷, 전기, 수도물등을 모두 끌어버림으로써 황소31입체작전을 벌였다. 학교측의 병력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홀출이나 학교에 진주하던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일명 '황소31입체작전'을 펴 하하에선 뿔기, 땅에서 포퍼포그가 최후탄을 쏘아대고 포가 사다리를 통해 소방호스로 최후탄을 쏘아대는 등 용해공의 협동작전을 펴 1,525명 연명, 1,290명 구속시켰다.

특히 소방호소로 최후탄을 쏘며 하하에선 그 무지개를 보며 "우리가 이겼다. 저 하하의 무지개는 우리의 승리를 상징해주지 않는다"며 서로 용기를 주었다한다.

(사회부)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입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코코스(각반 12명 정월/강사정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완성) 미국 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NGLISH영작, TIME·영어순해(독해)·TOEFL·종합영어·고득점TOEFL종합반, GRE·GMAT·문법·영어실용기초 VOCABULARY·AFKN정철·TOEFL L/C·무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 일본어정취·러시아어·러시아인회화 프랑스인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선어학교수법·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정밀급·수료증취득,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빌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훈대학교관 한빌빌 515-4020

파고다 외국어 학원

SINCE 1961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증각빌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영 어 순해, TOEFL L-C, TOEFL 600,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성음종합영어, 성악기분야, TIME·영작론,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미국인회화, GRE 2000, 인사사제세설반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일 어 회 화, 일본인회화, 러시아어, 독일 어, (초·중·고급), GMAT 700

英·日·中·露·佛語

# 고려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프랑스어

11~12월 학기수강접수중  
●개강: 91.11.4 (월)

alliance française

METHODES Adolescents-Adultes

Nov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maupier I, II sans fron. I, II, III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SFP 유익준비반  
•각 과정특강·숙성반, 문법·문법정리반  
•conversation libre, 사사·비비안.  
•상업무역분야, A, TV수업반

seoul-centre ☎755-4972, 5702 (충구)  
nam-seoul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364-0189  
TAEGU: 255-4630 DAEGU: 256-5181

alliance française  
프랑스어 교육 센터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민학교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 제대로 시키는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할 기로 작정하신 분이려면 외면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들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미리한 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이후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0기 수강생모집

●개 강: 1991.11.1(8주)  
●강 사: NATIVE SPEAKER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반 령: 8~13명씩 7단계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언어교육부원  
언어교육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호텔빌 737-4641(대)

### 제29회 본사 학술상 인문과학분야 본상

## 한국 상징주의 시기설정에 관한 일제언

### 1. 서론

이상화의 초기시를 논하면서 한 연구자는 "상화의 서정적 로망티즘을 대표하는 것은 테카당적 심벌의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로만티시즘-테카당-심벌의 의미상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그 에메모호함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말은 1920년대를 전후하여 복합적으로 수용된 서구문예사조의 수용과정상의 혼란과 양상에 대한 연구상의 혼란을, 나아가 우리 문학사에서 문예사조에 의한 시기구분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로 요하는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문예사조는 한 시기의 주요작가와 작품이 거둔 문학적 성과를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예사조는 서구처럼 일정한 단계와 그 상호간의 밀접한 관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20년대를 전후하여 일정한 순서가 없이 혼란된 것이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문예사조에 의한 시기구분은 그것 자체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어서의 현대시의 태동은 서구문예사조가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 수용과 전개에 있어서의 태동과 완성이 연결되고 있기에 이를 간과하고는 한국문학사의 정당한 시기구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한국문학사에서 문예사조에 의한 시기구분이 정당함을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에 다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수용과 전개 과정에서의 상징주의의 역할을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기존의 유야별 시문학사의 시기구분에서 상징주의의 위치를 바로잡아 보고자 할 뿐이다.

1920년대를 전후한 시문학의 주류는 낭만주의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백철은 이 시기를 '폐허'와 '백조'동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폐허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로 양분하고 있고, 김용우, 서정주, 조연현 등은 '낭만주의 시대'만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1920년대를 전후하여 수용, 전개된 상징주의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백철 자신도 '백조시대를 말하며서 한국 낭만주의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도처에서 언급하고 있고, "낭만주의가 한국시문학사에서 여러 문예사조를 수용하는 초기단계에 명확한 시조로서 수용된 적이 없었" 반면, 상징주의는 김억을 중심으로 시문학의 소개와 역사적 역할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필자는 한국시문학사에 있어서 상징주의를 낭만주의의 한 부분이거나 후성인 양 취급하려는 연구태도를 의문시하여, 상징주의의 존재를 부분적이거나 상징적 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상징주의의 시기설정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프랑스 상징주의와 시문학의 수용과정을 김억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국상징주의의 전개양상을 주요작품의 분석을 통해 검토한 후, 1920년대를 전후한 한국시문학사에서 상징주의의 시기설정 문제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 2. 상징주의의 수용

#### 1) 시문학의 소개

우리 문단에 상징주의 시문학이 처음 소개된 것은 '태서문예신보'에 의해서였다. 1918년 제9호에 백대진은 상징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처음으로 말라르메, 베를렌드, 랭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백대진의 이러한 소개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신학적 충격이 없었을 만한 일이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개념 소개에 불과했고 보다 본격적인 상징주의의 소개는 김억에 의해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상징주의와 소로크프의 소개로 시작된 김억의 상징주의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글에 보면 더욱 구체화된다.

'레푸루이말'(Les Fleurs du mal - 악의 꽃)의 저자인 샤르부르드레(Charles Baudelaire)의 근대문예에 준 힘은

크다. 이 점에 대하여 보드레르의 문예사조의 지위는 '로만티크'의 최후자이며 갖출 때에 근대신비 상징주의 선구자며, 살아서 시조였다. (프란츠 시단, '태서문예신보'(10), 1918)

위에 인용한 글은 "보드레르를 취급함으로써 상징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보드레르를 상징주의의 시조로 내세우고, 그의 시의 세계적 영향력을 역설하면서 초기 상징주의의 세기말적 종조의 정신 근원을 선체현한 보드레르의 존재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백대진의 상징주의의 취급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진보적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주의란 무엇인가. 상징파시인들은 짐이 어려운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그 가장 높은 해답은 아마 간단한 듯하다. 즉 "기술"을 말하라. 다만 "암시" 그것인 듯하다. 상징은 신비의 환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중략)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물질계와 영계, 무한과 유한을 상통시키는 매개자 상징이라 한다. 암시나 신비... (중략) 상징파 시가의 특색은 의미에 있어 암시라고 언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과 갖지 신 경에 닿치는 음향의 자극 - 그것이 가사이다.

(프란츠 시단, '태서문예신보' (11), 1918)

있다는 점이다. "테카당스 경향의 베를렌드 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하에서 서구시의 영향을 받아 들어 1920년대 한국근대시의 기틀을 이루는데 공헌"했으나 김억이 심취했던 "베를렌드의 우유와 음악적 어조는 김억의 손에 넘어가면 생의 무상함을 7-5조의 가락에 담은 수심가로 탈바꿈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또한 그 자신이 상징주의의 시조라고 일컬었던 보드레르에 대한 상대적 경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드레르의 작품선정상의 문제이다. 베를렌드의 시세계를 시로 응연하고 있는 것이 '작사법'이라면, "보드레르의 작품세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작품보다도 '묘음'이나 '상승'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번역시 화집에서는 이 작품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역시 김억의 작품선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그 시인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을 가려 뽑는 일이라고 할 때, '묘음'이나 '상승'을 제외시킨 김억의 작품선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에 양주동에 의해 번역된 보드레르의 시편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랭보와 말라르메에 대한 작품 소개가 없다는 점이다. 상징주의의 시문학 소개에서는 랭보와 말라르메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이 시를 예로 들어 이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집에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초기 한국상징주의가 주로 보드레르와 베를렌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

# 한국 낭만주의의 시는 상징주의 경향 뚜렷

라고 한 것은, 상징시가 암시로 되어 있는 것과 가시와 불가시, 물질계와 영계, 무한과 유한의 매개자 상징을 들었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주의에 대한 김억의 폭넓은 이해를 보여 준다. 상징주의의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신비주의, 이상적 미에 대한 추구, 음악성의 강조" 등에 대해서 김억은 그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억의 상징주의의 소개는 이밖에도 '이대 시론'을 것이다.

베를렌드시편	보드레르시편
가을의 노래, 흰발, 피아노, 나무그림자, 하늘은 저방우에, 결코 끌없는 잠은, 작시론, 도시로 나라는 비, 바람, 끝없는 권태의, 늘 휘는 꿈, 자정, 의 때, 스프라크하우세의 노래, 아아 설이라, 쇠퇴, 지나간 옛 날, 아나네에게, 갈망, 권태, 녹색(이상 21편)	죽음의 즐거움, 파죽, 달의 비애, 구적, 가을의 노래, 유행, 비몽의 연금술 (이상 7편)

표2) 1920년대를 전후한 상징주의시, ( )는 회수

시인	작품명
김억	낙양, 괴리, 표백, 유랑의 노래, 달과황폐, 불노리, 시내, 눈
주요한	백조의 노래(3), 음악의 관
황석우	붉은 고양이로다, 고양이와 꿈
이상화	나의 침실로(3), 허무교도의 찬송가, 말세의 회한, 이층의 사랑
박종화	도망의 아난, 자의 예찬(2), 죽음보다
홍사용	알다시피
박영희	커다란 문명을 꺼내고, 미소의 허와사, 적의 비극

현(幽玄)의 시이며 그 유현성이 근본적으로 가화(假化), 현현(顯顯)을 통해 절대를 보는 데서 빛이 나는 것. 즉 보드레르의 이른바 '정적 소리와 소리가 서로 부러뜨려 화답'하는 경지"라고 진제하고 '불노리'가 상징주의 계열의 시가 아니라 낭만주의 계열의 시이므로 "낭만주의의 시는 1910년대 말경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가 "주요한의 작품에는 약간의 상징이 사용되었고, 상징이 상징주의의 전배후라 할 수는 없다"고 강변하는데, 필자가 상징이 상징주의의 전 배후가 아니라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상징은 상징주의 이전에도 있었으며, 상징주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초시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적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시의 경우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서 상징주의적 시가의 조명이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첫째는 시인 자신이 밝히는 창작동기가 상징주의 시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면 상징주의시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세영은 "이 시의 중요한 이미지는 불과 불이며 이들은 각각 리미도와 초차의 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강사용은 '불노리'를 '공공상징'이라 하여 보드레르의 '수평적 공용'과 '수직적 공용'이라는 공용의 의무구조에 비추어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 시의 "베는 남성상징,女郎도는 여성상징으로女郎도, 여자는 중극에는 도당해야 할 유포피어의 상징"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자신의 교역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등 외적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 작품을 상징주의로 보려는 것은 건전한 견해가 더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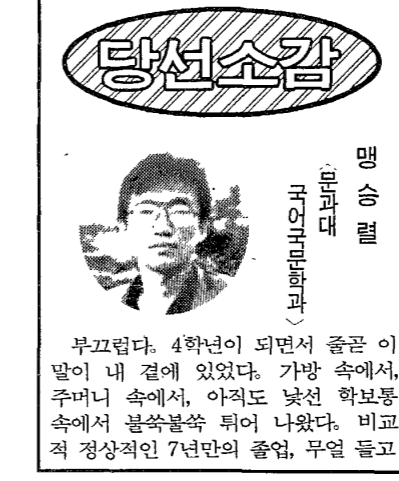
2) 황석우의 '백조의 노래'  
'폐허'장간호에 실린 이 시는 서구상징주의 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묘음'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자신의 교역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 심사평

맹승렬군의 (韓國 象徵主義 時期設定에 관한 一考)는 문예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종종 나타나는 몇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가령 상징주의의 독립된 영역이나 이른적 특성을 무시하고 낭만주의의 시기에 묶어 놓고 논의하는 방식이라든가, 양자를 동일시하는 이른적 무정간섭은 것이 그런 예에 속한다.

또한 이 글은 프랑스 상징주의의 시론의 수용과정을 김억의 문학활동들을 통해 검토하면서, 그렇게 수용된 상징주의 이론이, 우리 문예사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작품에 반영된 양상이 어떤 것



맹승렬  
한국문학사

교류를 나설 것인가 하는 생각이 치사하리만치 끈질기게 내 추위를 땀을 뻘뻘한다. 파멸을 자처하며 '제일 열심한 한 속제' 한 편을 골라 다듬어 신문에 투고했고, 당선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당선된 게 아니라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징 속에서 뛰어난 게 다른 부끄러움의 말을 내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움의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없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상성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상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쓴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다. 기쁘다. 논문이 부족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이 논문보다 더 많은 분량이 되었기에 그냥 기뻐하기로 했다.

인간을 해방하고자 노력한다. 이론의 수용과 작품의 실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우리 문예사조에서 상징주의의 시기설정이라는 문제를 다루어낸 것은 글쓴이의 독창적 논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고 있다.

홍기삼(문학대 국어국문학과교수)

'중론(中論) 관법론의 연구'는自我의 존재 여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각 학과이론을 소개하면서 특히 아(我)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래서 논문의 독창성, 논리성, 각주 등에서 미흡함이 눈에 띈다. 계속 정진하라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권기중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교류를 나설 것인가 하는 생각이 치사하리만치 끈질기게 내 추위를 땀을 뻘뻘한다. 파멸을 자처하며 '제일 열심한 한 속제' 한 편을 골라 다듬어 신문에 투고했고, 당선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당선된 게 아니라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징 속에서 뛰어난 게 다른 부끄러움의 말을 내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움의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없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상성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상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쓴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다. 기쁘다. 논문이 부족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이 논문보다 더 많은 분량이 되었기에 그냥 기뻐하기로 했다.

## 문예사조에 세심한 시기 구분 필요 김억 문학 활동통해 상징주의의 수용 검토

필요조건을 해결해 준 획기적 업적의 하나"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작품분석을 통해본 한국상징주의의 전개양상  
다음의 표는 김억, 황석우, 조병준, 오세영 등에 의해 상징주의로, 혹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로, 혹은 상징주의의 시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20년대를 전후한 주요시인들의 작품을 일별해 본 것이다.

이상의 시인들은 '창조', '폐허', '백조'의 주요 시인들로 시문학사에서 주로 낭만주의 시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시인들의 동일한 작품이 상징주의시로 다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작품중 '창조'의 '불노리', '백조의 노래', '백조'의 '나의 침실로'를 분석하여 당시의 우리 시문학을 일괄되게 지배했던 문예사조로서의 상징주의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적 골격은 '나'와 '고양이'의 관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의 '원초적, 음형'과 '고양이'의 '물결같은'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를 해명하는 아무런 상징적 가능성도 없으며, 마지막 4행의 '태양'이 '고양이'란 말 또한 그러한 관념으로 그 그저 막연한 연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후, "이 시가 상징주의의 특이한 신비적 공명성을 갖지 못하면서도 상징주의시라고 주장, 상징주의를 '부족하다'나 '도망'한 한국 상징주의라고 변호하여 그 문학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견해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논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사용은 이 시를 '낭만시'라고 하고, "선과 악의 묘음"을 보여 주는 상징시 "선과 악의 대화는 영혼의 균형을 이루려는, 영혼의 오버를 관능으로 끌려는 인간적인 꿈의 재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에 제시된 '고양이'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아닌 초월의 포안에 있는 고양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으로 보면, 보드레르나 말라르메 등의 절대세계의 탐구를 지향한 상징주의의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3)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이상화의 후기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 '백조'의 '나의 침실로'라는 초기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은 '나의 침실로'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백조' 3호(1923.9)에 실린 것으로 '백조는 낭만주의'라는 등식을 적용시키는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백조'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형기가 '낭만주의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글에서 이 작품을 '한국적 낭만주의'의 기점으로 한정시킨 절묘한 시적용어로 평가하는 반면에, 같은 책에서 마광수는 "상징주의시의 진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마광수에 의하면, "침실은 성의 상징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이 시에 대해 김용우는 "이 작품의 기

## 제29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본사제정 제29회 학술상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인문과학분야
  - 본 상 = 스승의 사랑(국문 4)
  - 장려상 = 한국 상징주의 시기 설정에 관한 일고(국문 4)
  - 대상 = 관법론의 연구(국문 4)
- 사회과학분야
  - 본 상 = 시와 모(사회 3)
  - 장려상 =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의식연구(사회 4)
  - AIDS(에이즈)병리(목)에 관한 소고(사회 4)
  - 외로움에 관한 법적 고찰(손해배상의 책임구성이론을 중심으로)(법학 4)
  - 스크립트 동(경주 경영 4)
  - 국민자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경영 4)
- 자연과학분야
  - 본 상 = 도강 진보 유 체 회(농업생물학과 4)공통연구
  - 장려상 = 수리 선(화학 4)
  - 대상 = 수리 선(화학 4)
  - 공통연구 = 수리 선(화학 4)

◇ 시상일시: 1991년 10월 24일(목) 오후 3시  
\* 입상자는 시상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동대신문사로 나와 주십시오.  
동대신문사

# 제29회 본사 학술상 사회과학분야 본상

## 사학재정 확충위반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 I. 머리말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교육열도 뜨겁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열과 성 만큼 우리의 대학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 진학사까지 결정에 달한 과열된 교육열은 대학 진학 후 급속히 냉각되어 지고 열악한 재정과 교육환경은 이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 속에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충족을 기대하기란 또한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극복하여 3년제 근거리대 거론되어 온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과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를 살펴보고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해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기부금입학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또한 공개토론회나 여론조사조차도 거의 가져 보지 못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무작정 기부금 입학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시적이나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보고 계층에 따라 혹은 소득에 따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계층에 따라 학생들의 의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밝히려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부금 입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63문항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①인구학적 변수 ②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견해 ③재정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⑤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의견 ⑥소득과 관련된 변수 등이다.

조사기간은 1991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전체 모집단에서 표집대상자 331명을 개인면접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 일수록 기부금 입학제를 찬성할 것이다'고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즉, 소득에 관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 3. 조사대상 지역의 특징

조사대상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남녀학생들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비율은 전체 학생수에 비해 여성이 3:1의 비율로 높았다. 계열별 특성을 보면 인문계열의 학생이 192명, 자연계열 학생이 112명, 예체능계열이 27명이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82명(24.8%), 2학년 82명(24.8%), 3학년 82명(24.8%), 4학년이 85명(25.7%)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표집방법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 II.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과 성격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약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재단은 대부분이 부

동산 특히 토지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토지가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란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안정성 있는 수입원으로 만들려면 재부자를 하여 임대업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야나 가지고 있는 재단이 자금 창출의 방법이 없다. 정부의 보조금도 아직까지는 거액의 금액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외부교육에 관련된 교육비나 중등교육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특히 사립대학에까지 잘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학생들이 반대하므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마지막 재원이 바로 기부금 입학이다. 기부금 입학제에서 기부금은 엄격히 말하면 입학조건부 기부금이다. 즉 입학의 이상을 내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대학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을 말한다.

#### 1. 기부금 입학의 장점

기부금 입학 제도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기부금 입학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사립대학의 재정 확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사립대학의 재

정확하는 모든것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운영상의 문제이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고 이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회적 측면의 문제이다.

### III.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 1. 한국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 1) 수입 구조

198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81개의 4년제 사립대학이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의 재정을 구성하는 주된 수입원은 학생납입금, 재단 전입금, 국고 지원, 기부금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한편으로는 설립자인 재단이 재원확보라는 점에서 중반하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나 사회적 대학 설립자나 재단에 맡은 모든 책임을 떠맡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중적 결합으로 사립대학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흔히 사회주의국가라고 불리우는 공산주의국가의 모든 대학이 또한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대학들은 전부 국립 혹은 공립대학이며, 대학재정은 국가의 예산으로 책정되므로 개별대학들이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 둘째로는 많은 수의 대학들이 개인이나 개인단체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일부 혹은 많은 대학들이 국가나 국가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세워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대학재정의 확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먼저 (표 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독의 경우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00%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학예산의 9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지원이 60.1%, 학생등록금이 13%, 학교법인인 16.9%를 차지하고 기부금은 1%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이 1.1%에 그치고 있고, 학생등록금이 79.1%나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당선소감



이 한 모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4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智者莫如福者'라던가? 참은 것이나 다름없는 장비군사를 놓고 조조가 개탄하였던 말이요. 나를 장비에 비유한다면 비약된 표현일지 모르겠다. 유망동인 내 자신을 칭찬하라고 생각했다. 그 수훈에서 벗어나기 위

③부정입학이 생기는 이유 부정입학이 생기는 이유(표 4)에 대해서는 재단의 '사리사욕'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난 26.9%, 학교 당국자의 사리사욕 2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또한 학생들의 재단에 대한 불신과 열악한 재정난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재정난의 해결방안

재정난의 해결방안(표 5)으로는 재단의 지원 없이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학생들의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재단이 부동산을 수익자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사업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①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바른 지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바른 지표는 '대학의

해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자꾸만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몸을 감고 있는 이 골짜기 또한 하나씩 풀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부정입학사건과 함께 시작된 기부금입학제의 논쟁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사회조사실습'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이 연구를 시작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진다.

저런 부족으로 이 글을 모두 실지 못함이 조급은 아쉽다.

이 논문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동료들과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답해준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상하게 지도 해주신 김기억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감안 조장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은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학문의 성소로서 남아야 한다는 인건적인 의식을 학생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 5) 각 독립변수와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교차분석

##### ①계열별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를 위하여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를 계열별로 따라 비교해 보면 찬성에 있어서 인문계열이 13%로 가장 낮고 자연계(18.8%)와 예체능계(18.5%)는 인문계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②학년별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

찬성에 있어서 4학년이 20%로써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4학년이 11.8%로써 다른 학년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③남녀별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

성별에 따른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의식 이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부모의 소득에 따른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

부모의 소득 또한 기부금 입학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낮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부금 입학에 대한 태도는 모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소득에 따른 기부금 입학에 대한 태도 학부모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사립대학 재정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난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 만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으니 차선책으로 기부금 입학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자는 매우 저조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 정부예산의 형편에 비추어 불세 사학에 대한 보조를 크게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립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공공대를 형성한다면 새로운 재원의 발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세금 중에서 가장 적게 부담을 지게 하며, 따라서 교육세를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기부금 입학제 보다는 정당하게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미 건립된 바 있는 대학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단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 재단은 수익용 기본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80% 이상을 전입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체나 기업체의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의 타당성은 대학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에 나아가 각 기업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셋째,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인건비, 관리 운영비,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을 내용증명서로 어떻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 구성원들의 사이에 형성된 재단 혹은 학교공익에 대한 불신이다. 대학재정이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는 가운데 해결되면 이와 같이 팽배하고 있는 불신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학재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예산결산을 민주화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단과 구성원들간의 깊은 불신의 골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 본교생들의 기부금 입학에 관한 의식연구

(표 1-1)

연도	지출액(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경비
1986	811,236	39.5	39.5	21.0
1987	934,572	40.0	37.2	22.8
1988	1,014,727	46.1	37.1	16.8

(표 2)

항목	빈도(명)	백분율(%)
중단의 과열 비용	49	15.0
재단의 비리	104	31.8
학생들의 의식	21	6.4
학교의 질적 저하	125	38.2
교수 수준	18	5.5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	10	3.1
총 계	331	100.0

(표 3)

항목	빈도(명)	백분율(%)
병원신설	26	7.9
도서관 증축	56	16.9
실습차량 확충	42	12.7
재단비리 척결	92	27.8
교수자격 향상	29	8.8
면학발전기금 조성	56	16.9
동국인의 애교심	29	8.8
불교혁신	1	0.3
총 계	331	100.0

(표 1-3)

	정부지원	학생등록금	학교법인	기부금	총액	기타
서독	100	-	-	-	-	-
프랑스	90.2	3.6	-	5.1	-	1.1
영국	60.1	13	16.9	1	-	9
미국	18.1	38.7	14.7	14.7	23.7	4.5
일본	22.5	60.3	8.6	8.6	-	-
한국	2.2	79.1	15.5	1.1	-	3.2

(표 4)

항목	빈도(명)	백분율(%)
재정난	87	26.9
재단의 사리사욕	116	35.8
학교당국의 사리사욕	69	21.3
학교발전기금 조성위해	12	3.7
학부모의 지나친 열성	40	12.0
총 계	331	100.0

(표 5)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정부지원	70	21.3
기부금 입학	4	1.2
기업체 기부	36	11.2
장학재단의 지원	16	4.9
학교수익사업 확충	50	15.2
등록금 인상	1	0.3
재단의 지원	154	46.0
총 계	331	100.0

(표 6)

항목	빈도(명)	백분율(%)
교육비 지원	60	18.1
대학의 자율성 보장	173	52.1
학문의 자유 보장	95	28.6
기타	3	0.9
총 계	331	100.0

(표 7)

항목	빈도(명)	백분율(%)
계층간의 위화감	108	43.4
대학의 등급화	10	4.0
교육공공의 원칙 위배	109	43.8
학생들간의 갈등심화	11	4.4
기타	11	4.4
총 계	249	100.0

#### 2) 지출 구조

대학재정의 지출은 크게 나누어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은 다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된다. 인건비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계수당,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는 연구비 등의 인건비를 말하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학생 경비 및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988년 현재 대학의 총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49.7%,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1%를 차지하고 있다.

#### 2.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

세계의 대학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설립의 주체가 국가나 혹은 국가의 공공기관인 것으로 서구에서는 예를 들어 서독의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 2) 정부의 재정난

기부금 입학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념적·법적 측면의 문제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교육은 교과서와 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고 듣고

### IV. 결과 및 분석

#### 1. 결과 및 분석

##### 1)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①재정 현황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학교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학생 경비 및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988년 현재 대학의 총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49.7%,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1%를 차지하고 있다.

##### ②재정현황의 정도

위의 질문에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247명에 달하므로 다시 재정현황의 정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학생들의 85.3%가 어렵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해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 현황이 심각성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재정현황이 어려운 이유

위의 질문에서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 210명에게 다시 재정현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85.7%가 재단전입금의 부족을 지적했고, 두번째로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재단이 낙후되어도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2) 학교의 문제점과 재정난 해결 방안

##### ①학교의 문제점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실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데도 불구하고 그렇하지 못하고 있는 재단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 ②학교발전기금을 위한 요구되는 사항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비리 척결이 먼저 행되어야 한다(27.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증축(16.9%), 면학발전기금 조성(12.7%)의 순서를 들고 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학생들이 재단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율성 보장

이 52.1%로 가장 많았고, 학문의 자유 보장 28.6%, 교육비 지원 18.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자율성에 있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때 학생들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 2)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①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태도

기부금 입학에 대한 찬성 15.4%, 반대 75.2%로써 반대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

##### ②찬성 이유

찬성하는 학생 51명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다. 찬성 이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은 대학재정의 심각성을 생각해볼 때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대학의 복지시설과 연구 및 실습장비를 확충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대학과 학생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전부터 음성적으로 기부금 입학(부정입학)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라는 의견으로도 사료된다.

##### ③반대 이유

반대하는 학생 249명에 대해 반대 이유를 물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이 상품화되어 돈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능력으로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균등과 원칙에 위배되며, 계층간의 위화

### 심사평

#### 이한모의 논문은 이 주제가 현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매우 현실감각이 있는 논문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대학재정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현실을 다룬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한 거의 완벽한 가까운 방법론이다. 과학적 논리에 합당한 정밀한 표본추출 및 일정한 조사관리, 컴퓨터를 이용한 세심한 통계 분석등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 한 불희

##### (법과대 법학과 교수)

'에이즈 범리에 관한 논고' 논문은 중점에 착안하지 못한 장외의 우선 순위였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다룬데 체계적 합리성을 기하기가 어려운데 부러움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에이즈로 인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등장할 것 같다. 수혈·감염, 사회복지문제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률가 또는 법학도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정진있기를 바란다.

#### 손해목

##### (법과대 법학과 교수)

'국민차(Public-Car)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의료과오 범리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소견을 펴려하고 있다.

논점의 파악, 이론전개, 각주붙임등이 부러움이 자연스러웠고 논문의 내용도 좋았다. 영·미·독일 등 외국의 참고문헌을 풍부하여 비교법적인 소개가 없는 것이 아쉽다.

#### 한 불희

##### (법과대 법학과 교수)

'에이즈 범리에 관한 논고' 논문은 중점에 착안하지 못한 장외의 우선 순위였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다룬데 체계적 합리성을 기하기가 어려운데 부러움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에이즈로 인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등장할 것 같다. 수혈·감염, 사회복지문제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률가 또는 법학도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정진있기를 바란다.

#### 손해목

##### (법과대 법학과 교수)

'국민차(Public-Car)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한 내용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구미 여러나라들의 1,2차 유통과정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변화와 이에 뒤따르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기술개발과 모델 체인지는 꾸준히 주어져 왔다. 그 결과 중대형 모델에서 소형화 모델로 그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저연비, 저공해, 안전성의 강화 등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가 주된 변화추세로 특징지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Gulf전쟁중 이나 이후에도 기이하게 중대형과 선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왜곡된 우리나라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행태는 일시적인 책임이 메이커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국민차(Public-Car)의 개발과 저변확대는 건전한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전략으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체계면에서 논리성이 미약하며









### 여성잡지를 해부한다

## 건강한 잡지..올바른 여성상 정립부터

‘품위있는 고급 여성지,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 섹스있는 여성 유희하는 주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잡지들의 광고문구이다. 품위있고 우아하면서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비결이 잔뜩 들어 있다는 이 잡지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광고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1/4, 1/3이며 여기에 준광고라 할 수 있는 패션과 신상품 소개를 합친다면 1/2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광고가 많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당연한 한 주체임을, 여자는 그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수동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부의 경우, 정장의 남자가 품위있고 의젓하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는 몸을 약간 뒤돌고 시선은 다소곳이 아래를 향하거나 게슴츠레한 눈, 다리를 벌린 채 입도 약간 벌어진 상태로 서 있다. 속옷광고도 마찬가지이다. 웃옷은 벗은 채 아래 속옷만 걸쳤음에도 남자는 자신만만한 모습이지만 여자는 ‘눈부시게 빛나는 네 모습에 떨리는 전율을 느낀다’ ‘첫 순간 눈을 가슴을 향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요염하게 몸을 꼬고



남자들은 정면사진을, 여자들은 측면 혹은 부분사진을 싣고 있다. 내용도 취업여성을 그려내는 부분에 있어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분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대가족의 주부로서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슈퍼우먼으로 그려져 있다.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도 남편과의 진정한 대화로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질투심을 유발케 하라든가 아니면 자기편리

드러난 식탁의 괴담을, 이 모든 것이 수입가구, 수입전자제품, 수입식품들이다. 물론 광고에도 외국인도 등장하는 비율이 높고 심지어 아동복에도 외국 어린이가 등장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잡지의 광고와 기사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의외로 출중하고 성격매력이 듬뿍 넘치는 남자(편)에게는 순종적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집안은 수입품들로 가득 채우

◇시중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성잡지의 대부분은 연예인주변애기, 남자유혹하는 법, 명사의 섹스체험담들 감각을 자극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연순 <한국여성민우회원>

### 절반이상 성차별 과소비 부추기는 광고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에 이바지해야

있다. 남성 화장품 광고의 경우 40대 남자가 연류과 경륜을 자랑하며 중후하고 이지적인 멋을 풍기게 하는데 반해 여성화장품은 젊은 미모의 여자가 웃을 땀을 흘린 채 천만 두르고 영드러 있는 사진이 나란히 실려있다. 가솔을 구두로 가리고 있는 나체의 젊은 여자 뒷자리를 보려면 결국 구두를 사야만 한다는 논리, 이러한 모든 것은 재판매는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를 남성들의 노리게, 눈요기감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 기사들은 하나같이

(절모습 꾸미기)에 소홀하면 남편은 신신함을 찾아 바람을 피우게 된다고 하며 남편의 외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유명 여성지들이 빠뜨리지 않고 다루는 내용으로는 연예인의 주변애기, 남자 유혹하는 법,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자연식품, 명사의 섹스 체험담, 화를 낳는 약 집중연구 등이다. 또한 계절에 맞는 분위기로 꾸민 실내장식과 가구가 들어선 집들을 소개하는 데 원목탁자 위에 놓인 찻잔 세트,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음식들, 화려한 조명 아래

는 그런 여성을 이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잡지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의 성의 대상화, 과소비추진, 운세를 빙자한 요행심리조작 등 이러한 내용들은 ‘유익한 정보의 다양한 제공’이라는 본래의미에서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인구의 48%가 여성, 취업여성의 60%가 기혼여성인 데 진정한 여성잡지라면 그들의 특이문제가 가사노동을 담아야며, 공동체적 건강함을 지향하며 교육문제-환경

서사건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80년 ‘동국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명의 ‘동국대 민중(1)에서 지난해 ‘동국대중추위원회’ 명의 ‘동국대중추위원회’ 또 이년의 손모, 최모씨의 투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때론 이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보다 인신공격이나, 모함으로 비화되는게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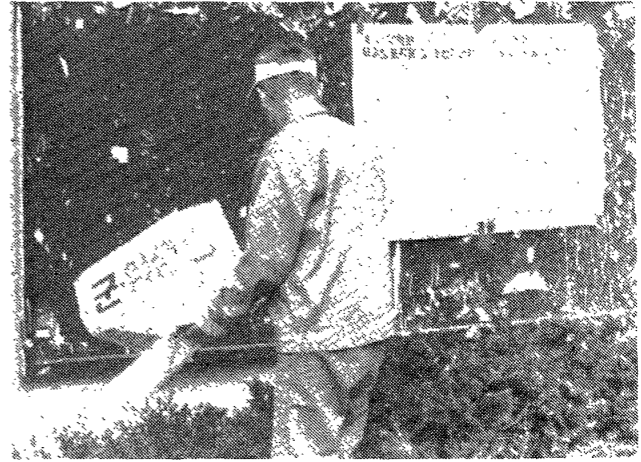
#### 投 書

인 과정이었다. 이번 손모씨 투서에서도 보듯 ‘광인의 발상’, ‘대학자’, ‘영터’, ‘경고’ 등의 단어로 일러지는 감정폭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투서위치는 세상. 진정한 가치가 혼돈된 사회 현실에 대학이 한 몫 한다면 대학총장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특히 사회인을 배출하고 학생들의 가치기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스승이 바로 소문과 모함과 비방의 한가운데

서있다는 것은 제자들을 슬프게 한다. 스승과 제자가 교정 잔디밭에 앉아 딱딱한 한가운데는 일이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꽤 큰 크기로 들어가 벌어진것 처럼 취급되어지는게 현실이다. 때로는 인맥과 파워를 불리우는 우리스승들의 참모습을 되찾는데 제자들은 주저해선 안된다. ▲학교당국은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투서나 백서로 학내문제를 공개하려는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용, 부등, 부정세력결집에 투서보다 앞장서 해결하려는 학내 교수, 학생, 직원들의 노력이 경주돼야만이 마땅하다. 아무튼 이번투서파문으로 상처입은 제자들의 용이런진 가슴에 스승은 변화된 모습으로 진리탐구와 올바른 가치추구로 다가와야 될 것이다. <철>

## “내가 붙인것 내가 떼기 실천하자”

### 동약청소 담당하는 옹역 아저씨, 아주머니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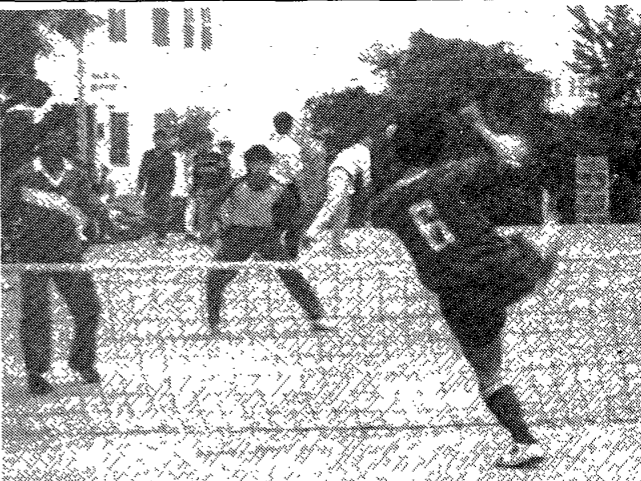


◇외부광고, 기간이 지난 광고를 처리하고 있는 옹역아저씨

학생회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요즘, 매년 이맘때면 후보선전물에 몰살을 당하는 동약을 깨끗이 청소하느라 고생하는 옹역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을 만나보았다. 다양한 지하의 용역사무실을 찾았을때는 6,7명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썰렁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얼핏보아도 길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노동에 지친 삶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매일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저녁6시에 퇴근할때까지 교내의 각 건물 내부청소와 건물외부의 환경정리, 대자보정리 등의 고된 업무를 시달린다. 우리학교 용역 인부는 모두 48명인데 이들이 처리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청소차량 두대분, 특히 요즘같은 선거철에는 평소보다 절반 가량이나 더 많은 양을 처리한다.

### 선거철 쓰레기는 청소차량 3대분 수십장 홍보물·바닥대자보 절제시급

그러나 이들의 고된 작업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어지럽혀지는 동약을 다 치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타직종보다 낮은 근로조건 때문에 일손마저 부족해 깨끗한 동약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상차원에서 일하는 여영찬(62세)씨는 “요즘같은 선거철이 되면 각종 선전물과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대자보들의 범람으로 작업이 더욱 힘들어집니다”라며 선거철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들이 처리하는 게시물은 기간이 지난 선전물과 외부 상업광고 그리고 찢겨지거나 해서 지저분해진 대자보 등이다. 이 학생들의 무분별한 대자보문화에 대해 여씨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행위로서 교내가 어지럽혀지고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한다면 그것은 분명 올바른 대자보문화가 아니지요. 자신이 붙인 대자보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며 당부의 말을 한다. <龍>



잠깐만! 동약의 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축구’. 정말 흥이 넘치는 운동경기죠. 그러나 시끄러움으로 인한 수업 방해, 통행 불편... 이러한 것들도 익숙해져야만 할까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문화부>

### 구내서점 이대로 좋은가 ‘제2의 도서관’ 역할 필요하다

흔히 대학 구내서점이란 ‘풍부한 전공서적’ ‘저렴한 가격’을 떠올린다. 그러나 본교 구내서점의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내 서점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 일반 시중서점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서적들을 얻기 원하나 본교의 경우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좀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구내서점이 ‘본교의 학생, 교수, 대학원생, 직원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인해택 부속 등 일반서점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구내서점 추진 양력기씨는 “사회과학적이지 않은 사전, TOEFL 등은 정가보다 조금씩 싸게 판매하는 등 이용자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재의 경우 마진율이 10%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줄때는 운영하기 힘들다”라며 어려운 점을 밝힌다.

구내서점은 지난 79년 다량판 문방구자리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러 2~3회의 이사를 거쳤는데 이는 그만큼 이용자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편리한 학교행정만을 고집한 예라 하겠다. 앞으로 구내서점이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장소라는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책을 볼 수도 있는 제2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함께 가격적인, 다양한 종류의 서적 배치 등으로 이용자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임대료를 낮추는 일이 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야하며, 서점은 귀찮은 책도 처리문제를 덜어주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비치해 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경애 기자>

서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점에 비치된 책들 가운데 시, 소설 등의 문학서적 내지 사회과학서적들의 비율도 매우 적어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해방관 1층에 위치한 전 예비군 상황실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점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더해주고 있다.

이영신 조각전  
본교 동문 이영신(미술 90졸)씨의 개인조각전이 열린다.  
• 일시: 10월(23)부터 29일까지  
• 오후 4시30분  
• 장소: 관훈동 ‘갤러리 M’  
• 문의: 722-9230

찰개구리  
김태준 (2)



# SAMMI

##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미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정성과 지혜를 다했던 선조 - 철의 보석이라는 특수강 산업에 전념,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삼미. 삼미는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우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1989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ATLAS/AL TECH 철강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특수강 전문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삼미는 확연세라믹스, 질륨비소반도체, 항공산업용 2천만대를 내다보는 첨단 영역에 과감히 도전 신소재, 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미의 기술과 정성 -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삼미의 결정체입니다.

### 삼 미

계좌시: (주)삼미 | 삼미종합수강 | 삼미금속 | 삼미정공 | 삼미유동 | 삼미기술산업 | 삼미이론 | 삼미화인세라믹스 | 삼미연하 | 대명록재공업 | 삼미문화재단